

KIA, 5위 확정까지 '-3승' ... 이번주 챔피언서 결판 낸다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의 마지막 한 주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4일 LG 트윈스와 잠실구장에서 원정경기를 갖고 2022시즌 마무리에 들어간다. 4일 잠실에서 경기를 갖는 두 팀은 이후 장소를 바꿔 5-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다시 격돌한다. KIA는 이후 7-8일 KT 위즈를 상대로 홈에서 2연전을 갖고 올 시즌 대장정을 끝낸다. 끝까지 남은 5위 싸움, 이의리에게 눈길이 쏠린다. 3일 잠실구장에서 예정됐던 KIA와 LG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하루 밀어 이의리가 4일 선발로 마운

KIA, LG와 물리칠 수 없는 3경기
오늘 잠실 LG전 이의리 10승 도전
NC가 5연승을 거두더라도
KIA 3승 채우면 자력 5위 확정
7일에는 나지완 은퇴식 열려

드에 오른다. LG에서는 임찬규가 선발로 나선다. 이의리는 지난 9월 24일 NC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운명의 3연전'에서 승리를 더한 이의리는 시즌 9승째를 기록하면서 프로 첫 10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가 없었다면 3일 경기에 이어 8일 2022시즌 최종전까지 이의리가 출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등판이 밀리면서 이번 LG전이 이의리의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팀의 5위 확정이라는 막중한 역할이 이의리에게 주어졌다. KIA는 2일 한화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0-1 대승을 거두면서, 역시 이날 승리를 거둔 NC와 두 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KIA가 5위 싸움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NC가 남은 5경기에서 5연승을 거두더라도 KIA

는 5경기에서 3승을 채우면 자력으로 5위를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와 상황이 좋지 않다. KIA는 LG와 3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대전적에서 4승 9패로 열세다. 2위 LG 입장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다. SSG가 '매직넘버 1'을 남겨두고 치른 3일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7로 지면서, LG에 아직 실날 같은 1위 가능성이 남아있다. 4일 KIA, LG 모두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격돌하게 되는 만큼 올 시즌 가장 눈길 끄는 승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경기가 없는 NC와 SSG는 각기 다른 계산을 하면서 잠실 경기를 지켜볼 전망이다. 시즌이 저무는 한 주 챔피언스필드는 '결과 시

작'의 무대가 된다. 7일에는 'KIA의 홈런타자, 끝내주는 나지완'이라는 주제로 나지완의 은퇴식이 열린다. 프로야구 역사에서도 손에 꼽는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장식한 타이거즈의 홈런타자 나지완과의 작별의 시간. 관심사는 나지완의 '마지막 타석'이다. 은퇴식에 앞서 KIA가 순위 싸움의 마침표를 찍으면 나지완은 그라운드에서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8일에는 '아기호랑이'들이 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2023신인드래프트를 통해서 선발한 총합과 좌완 운영철 등 9명의 신인 선수가 이날 입단식과 환영식에 참석해 새로운 시작점을 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일 영광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제12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END와 자연환경의 8강전에서 3회초 END 조양성 타석 때 1루 주자 김진수가 도루를 시도해 세이프되고 있다. 이날 END는 10-5로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강 확정

광일리그 - 워리워스·정진산업스카이·TOT LINE·(주)삼진
무등리그 - END·에어패스 파죽지세·포플레이 포비스·그린라인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막을 올렸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지난 1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광일리그 8강전을 통해 열전에 돌입했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챔피언을 가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서 먼저 광일리그 4강팀이 결정됐다. TOT LINE과 (주)삼진이 기권승으로 4강에 직행했다. 대회 개막전을 준비했던 TOT LINE은 김가이즈가 선수 부상으로 인한 인원 부족으로 기권하면서 승자가 됐다. 이어 열린 워리워스와 화이트스카스 경기에서는 '노장의 투혼'을 앞세운 워리워스가 10-7 승리를 거뒀다. 1회 4점을 뽑아낸 워리워스는 2회 5실점으로 역전을 허용했지만 2회와 4회 각각 2점과 4점을 보태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3번 타자 박상선이 2개의 도루와 함께 3득점을 만들어냈다. 마무리로 나선 김병희(59)가 2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무등기 강호인 (주)삼진도 사원병원이 인원 부족으로 기권하면서 바로 준결승을 준비하게 됐다. 정진산업스카이는 뉴욕야시장을 7-0으로 제압했다. 1회 2점을 만든 정진산업스카이는 3회에도 3점을 보태며 승기를 잡았다. 선발 강현구가 3이닝 무실점 5탈삼진을 기록하며 초반 싸움을 이끌었고, 타석에서는 토타자 최홍준이 멀티히트와 함께 3도루 4득점의 활약을 했다. 뉴욕 야시장의 선발 이만수와 마무리 이시윤이

13탈삼진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2일 진행된 무등리그 경기에서는 END와 에어패스 파죽지세, 포플레이 포비스, 그린라인이 4강을 확정했다. END는 지난해 '챔피언'인 자연환경을 상대로 10-5 승리를 장식했다. 토타자 조양성이 투런포를 날리면서 2회 7득점을 이끌었고, 9번 김진수는 멀티히트와 함께 3타점 3득점 3도루로 맹활약했다. 에어패스 파죽지세는 불링블링과 초반 뜨거운 타격전을 벌였다. 1회 2점씩 주고받은 두 팀은 2회에도 5점씩 나눠 가졌다. 3회 불링블링이 1점을 더한 뒤 에어패스 파죽지세가 3회말 3점을 만들면서 승기를 잡았다. 승리투수가 된 최영현은 타석에서도 멀티히트로 2타점을 올리는 등 공·수에서 활약했다. 포플레이 포비스도 파트너즈와 화끈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10-9로 이겼다. 선취점을 내준 포플레이 포비스가 1회말 2-1을 만든 뒤 2회 5점을 보탤 때, 7-3으로 앞선 5회초 6실점으로 역전을 허용했지만 6회말 밀어내기 볼넷으로 경기를 끝냈다. 멀티히트로 2타점을 올린 토타자 손영생이 3차례 홈을 밟으며 승리에 기여했다. 파트너즈의 이영준은 3안타 3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지난해 광일리그 우승팀이 그린라인은 무등리그로 옮겨 치른 첫 경기에서 9-8 승리를 거뒀다. 2-0으로 앞선 2회초 대거 7실점을 했지만, 2회 1점을 보낸 그린라인은 3회와 4회 각각 3점씩 뽑아내면서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다. 선발 양지승이 5이닝을 지키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1차차 전적

- ◇광일리그 8강전 (1일)
 - ◆1경기 (기권승) TOT LINE 11111111-7 김가이즈 0000000-0
 - ◆2경기 워리워스 4204-10 화이트스카스 5101-7
 - ▲승리투수 : 김병희
 - ◆3경기 (기권승) (주)삼진 11111111-7 사원병원 0000000-0
 - ◆4경기 정진산업스카이 203101-7 뉴욕야시장 0000000-0
 - ▲승리투수 : 강현구
 - ◇무등리그 8강전 (2일)
 - ◆1경기 END 07102-10 자연환경 00140-5
 - ▲승리투수 : 정준도 ▲홈런 : 조양성 (2회 2점·END)
 - ◆2경기 (4회 시간 제한) 불링블링 2510-8 에어패스파죽지세 253X-10
 - ▲승리투수 : 최영현
 - ◆3경기 파트너스 102060-9 포플레이포비스 250021-10
 - ▲승리투수 : 양하성
 - ◆4경기 카오스 07001-8 그린라인 2133-9
 - ▲승리투수 : 양지승

KIA 신인선수 9명과 계약 ... 투수 운영철 3억2000만원

KIA 타이거즈가 총합과 투수 운영철과 계약금 3억2000만원에 도장을 찍는 등 신인선수 9명과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 KIA는 지난 2일 2023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한 운영철과 계약금 3억2000만원, 연봉 3000만원에 입단계약을 체결했다.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2라운드 지명권을 양도했던 KIA는 3라운드 정해원(내야수·휘문고)과는 계약금 1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4라운드 김세일(투수·마산용마고), 5라운드 박도규(투수·공주고)는 계약금 6000만원, 6라운드 이송찬(투수·동성고)은 계약금 5000만원에 도장

을 찍었다. 7라운드 이도현(투수·휘문고)과 8라운드 박일훈(투수·안산공고)은 각각 계약금 4000만원, 9라운드 김도원(내야수·서울고)과 10라운드 김재현(내야수·송원대)은 각각 3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끝냈다. 이들의 연봉은 3000만원으로 같다. 11라운드에서 지명했던 경기고 내야수 고은호는 대학 진학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편 KIA는 오는 8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2023년 신인 선수 입단식 및 환영식을 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대전과 2-2 ... 최다승점 기록 '82'

광주FC의 K리그2 최다승 도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전 최다승점 기록을 '82'로 경신했다. 광주가 지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K리그2 2022 4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1-2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 이상기가 광주에서 첫 골을 극적인 동점골로 장식했다. 선제골은 광주의 차지였다. 전반 13분 두현석의 환상적인 골이 나왔다. 김중우가 중원에서 이민기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왼쪽 측면으로 진입한 뒤 반대쪽으로 길게 크로스를 띄웠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달려든 두현석이 발리 슈팅으로 대전의 골망을 흔들었다. 앞선 안산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4호골. 골키퍼 이준이 좋은 수비로 광주 골대를 지켰다. 전반 26분 이진현의 왼발 슈팅을 막아냈고, 전반 37분에는 김인근의 헤더를 봉쇄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진현의 매서운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다. 이번에도 이준이 몸을 날려서 실점을 막아냈다. 대전이 집중력 있는 공격을 하면서 후반 18분 광주의 골대를 열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대전 울리안이 공을 몰고 간 뒤 마사에게 공을 넘겼다. 마사의 슈팅이 골키퍼 이준의 손 맞고 골대를 넘어가면서 승부가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2분 뒤 다시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서영재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울리안의 머리로 향했고,

이어 광주의 골망이 흔들렸다. 다시 2분 뒤 울리안의 패스에 이어 이진현의 골이 나왔다.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광주가 한숨을 들쭉했다. 약속된 90분이 지난 뒤 7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가 막판 공세에 나섰다. 후반 47분 박한빈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지만, 후반 49분 이상기가 왼쪽에서 산드로가 보내준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대전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이상기의 첫 골로 광주는 패배를 지우고 24승 10무 4패, 승점 82를 만들었다. 앞선 안산전 3-0승리로 K리그2 최다승점 기록을 79점에서 82점으로 갈아치웠던 광주는 다시 한번 새 기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날 무승부로 이정호 감독이 목표했던 '승점 90'은 무산됐다. 대전 두 경기를 남겨둔 광주는 9일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2017년 경남이 작성한 K리그2 최다승(24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한편 이정호 감독은 "선제 득점 이후 역전까지 허용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주만의 색깔로 광주만의 축구를 펼칠기에 적지에서 승점을 쌓을 수 있었다"며 "라인업 중 이상기, 김현훈 선수가 올 시즌 득점이 없었는데 이상기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다. 포지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득점할 수 있는, 한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팀이기에 우리가 우승까지 거둔 것 같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2022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지난 1~2일 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시배구협회(회장 전갑수)와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페퍼저축은행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44팀과 장애인 좌식 동호인 클럽 24팀 등 총 68팀 1400여 명의 선수·지도자가 참가했다. <시애틀 제공>